

성숙한 시대의 감각으로 재 조명되어야 할 칼빈의 여성관

심 창 섭 교수

(총신신학원, 역사신학)

〈목 차〉

- | | |
|-----------------------------------|-------------------------------------|
| I. 서 론 | 3.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칼빈의 긍정적 견해 |
| II. 본 론 | 4. 성숙한 시대 감각에서 재조명
되어야 할 칼빈의 여성관 |
| 1. 칼빈의 여성관 연구에 대한
사료와 문헌들 | III. 결 론 |
| 2.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칼빈의 전통적 견해 | |

I. 서 론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칼빈이 1540년 8월 10일 31세의 나이로 자기가 목회하던 스트라스부르그의 프랑스 교회의 과부인 이데렛트(Idelette de Bure)와 결혼했을 때 아무도 이 결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과부가 재혼하지 아니하고 독신으로 헌신하는 것을 신앙의 미덕으로 삼았던 시대에 자기 교회에 출석하는 재세례파 출신의 과부와 결혼한 것은 목회자로서의 칼빈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리라. 그러나 칼빈은 여기에 대하여 아무런 갈등이나 정신적인 고통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결혼을 해 버렸다. 6주 후에 그

78 기독교 교육연구

의 친구 파렐에게 그의 아내가 병석에 누웠을 때 이렇게 행복에 찬 고백을 했다. “사실 주님은 우리의 결혼이 너무 행복할까봐 정도에 지나치지 않도록 우리의 기쁨을 처음부터 절제 하셨습니다.”¹⁾

결혼의 주된 목적을 단순한 자손의 생식수단으로 여겼던 가톨릭교회와 루터의 견해를 극복하고 결혼의 목적을 사랑과 진실과 믿음 안에서의 연합으로 규정지었던²⁾ 칼빈이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은 그의 결혼관에서 나온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결혼문제에 있어서 현대적 의미를 간파하기까지 한 칼빈이지만 교회와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부분의 칼빈연구가들에 의해 짙은 보수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자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칼빈시대의 여성문제는 많은 신학적인 문제에 비해서 거의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종교개혁의 주요관건이 되지 못했던 여성문제를 칼빈에게서 완전한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미 거대하고 완고한 빙산처럼 견고해 보이던 중세의 기독교사회(Corpus Christianum)가 16세기에 와서 서서히 붕괴하기 시작했고 여성문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비록 전술한바대로 여성에 대한 이슈는 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 1) HERMIGARD, VI, p. 312 재인용 박건택 역, 인간칼빈, 정음사, 1983, p. 32.
- 2) JOHN CALVIN'S INSTITUTES HIS OPUS MAGNUM, POTCHEF-STROOM UNIVERSITY, INSTITUTE FOR REFORMATIONAL STUDIES, 1986, p. 198.

칼빈은 1545년에 출간한 결혼준칙(MARRIAGE ORDINANCE)의 제8항에서 부모가 자식들의 결혼을 주선하는 일반적인 관례를 반대했다. 그는 어떤 부모라도 자식의 결혼을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결혼 당사자들이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고, 부모의 결정을 거절할 권한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요한 것은 자식이 부모의 결정을 어겼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그들이 처벌될 수 없음도 언급했다.

리나 신학적인 문제에 비해서는 파편에 불과하지만 주석, 설교,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여성관에서 우리는 여성해방에 대한 여명의 빛을 볼 수도 있다. 칼빈의 여성관은 현대 여성운동의 내용과는 견줄 수 없지만 16세기에 처해 있던 칼빈의 정황을 참작한다면 진보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그의 입장에서 상당한 현대적 의미와 교회에서의 여성해방 이론의 원리를 도출해 낼 수 있다. 특히 여성운동이 성숙한 단계에 있는 현대의 감각에서 16세기 칼빈의 여성관을 재조명해 본다면 우리는 칼빈에게서 현대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진부한 보수주의 경향의 여성비하 사상을 개혁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해서 현재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여성에 대한 보수성을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여성문제는 어떤 이론에 기초한 것이라기 보다는 문화적 질병(Cultural disease)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적 질병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현대 여성운동의 여파로 제기된 교회의 여성에 대한 입장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고, 종래의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많은 수정을 시도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본다. 놀라운 것은 미국의 화란 보수개혁주의 교단을 대표하는 기독교 개혁파(C.R.C)총회에서 최근에 여성 안수를 공식으로 인정하므로 이제 보수적인 칼빈주의 개혁파 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된다.

이런 차제에 칼빈의 여성관을 재검토하여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올바르게 정립시켜 보려는 노력은 대단히 유익하다고 본다.

- 3) 기독교 국가라고 자랑하는 미국도 19세기에야 여성들이 투표권을 획득했고, 그것은 흑인들보다도 늦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1970년에 와서 여성 안수는 700명에 불과하여, 전체 목사 안수자 470,000명에 비하면 극소수였다. cf. JOHN MARK HICKS and BRUCE L. MORTON, *WOMEN'S ROLE IN THE CHURCH*(SHREVEPORT : LAMBERT BOOK HOUSE, INC, 1978), p. 5.

이 논문이 취급해야 할 범위는 본론에서 네분야로 나뉘게 될 것이다. 첫 부분에서는 칼빈의 여성관에 대해서 취급한 사료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다. 두번째 부분에서는 사료에 나타난 칼빈의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전개하고, 세번째 부분에서는 칼빈의 긍정적인 여성의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네번째 부분에서 본 논문의 주제인 성숙한 시대의 감각에서 칼빈의 여성관을 본론 첫 부분에서 다른 이론들을 기반으로 하여 재조명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전체적인 논점들을 재정리하여 볼 예정이다.

II. 본 론

1. 칼빈의 여성관 연구에 대한 사료와 문헌들

우선 칼빈자신의 여성에 대한 견해가 수록된 사료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신약성서에 나타난 여성문제를 취급한 부분들(고전 11 : 3-16; 14 : 26-35; 엡 5 : 21-22; 골 3 : 18; 딤후전 2 : 8-15; 벧전 3 : 7등)에 대한 칼빈 자신의 주해, 설교들을 들 수 있다(이것들을 취급한 원서는 *J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에 있으며, Calvin's Translation society의 번역본들을 참조할 수 있다).

그리고 두번째는 칼빈의 대작인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그의 여성관에 대한 부분들을 취급하고(2. 8. 42.2. 13. 3.4. 10. 31.4. 15. 20-22등), 설교와 주해에 나타난 그의 견해와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주석과 설교에 나타난 칼빈의 여성관이 기독교강요에서 재조명 될때, 여성문제에 있어서 바울사상에 얽매었던 칼빈의 폐쇄성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칼빈 자신의 여성관을 취급한 대표적 연구문헌들 가운데 칼빈의 견해를 극우로 취급하는 어거스트 베벨(August Bebel)의 여성과 사회주의(Women and Socialism, Trans. M. Stern, New York, 1910)와 조지아 하킨스(Georgia Harkness)의 요한 칼빈 그리고 그의 윤리(The Man and His Ethics, New York: Abindon Press, 1958)을 들 수 있다. 그러나 1963년 불란서 학자 앙드레 비엘르(Andre Biéler)에 의해서 칼빈의 여성관이 약간의 진전을 보게 된다. 비엘르는 칼빈의 윤리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Man and Women in Calvin's Ethic)이라는 논문에서 사랑, 결혼, 독신제, 이혼, 간음, 창녀에 대한 칼빈의 사상을 16세기 정황에 비추어 고찰하여 칼빈의 여성관에 대해 보다 객관성 있는 진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칼빈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독자적인 논문이 발표된 것은 요한 브렛(John Bratt)에 의해 발표된 “칼빈의 저서들에 나타난 여성들의 역할과 위상”(“The Role and Status of Women in the writings of John Calvin”, In Renaissance, *Reformation, Resurgeme:Collegiun on Calvin and Calvin Studies*, ed. Peter Deklerk, pp. 1-17, Grand Rapids: C. T. S, 1976)이었다. 주로 칼빈의 창세기 2장, 바울의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 디모데전서와 칼빈 자신의 서간문에서 취급된 칼빈의 여성에 대한 견해를 다루고 있다. 그는 교회에서의 공적인 여성의 역할에 대하여서는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보다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칼빈의 견해를 기술하고 있다.

같은 해에 브렛과 상이한 견해를 피력한 윌리스 디보어(Willis Deboer)의 논문인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칼빈”(Calvin on the Role of Women, In *Exploring the Heritage of John Calvin:Essays in Honor of John H. Brau*, ed. D.E. Holwerda, pp. 236-272,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6)이 출간되었다. 그뒤 1985년 제인 뎀sey 더글라스(J. D. Douglass)에 의해 칼빈의 여성관을 16세

82 기독교 교육연구

기의 사회적인 정황과 르네상스는 물론이고, 칼빈의 신학사상의 기초원리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인의 자유개념에서 재조명 함으로써 칼빈의 여성관을 폭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독자들에게 제공하였다(Women Freedom and Calvin, The Westminster Press, 1985). 일년후 남아공화국 칼빈주의 연구소 소장인 벤들 발트(B. J. Van der Walt) 교수에 의해 “중세기와 칼빈 그리고 우리 시대에 있어서의 여성과 결혼”(Women and Marriage in the Middle Ages, in Calvin and our time, *John Calvin's Institutes His Opus Magnum*, Potchetstroom : Institute For Reformational Studies, 1986)이라는 제하에서 칼빈의 여성관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시각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있었다. 이 외에 소논문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문헌들을 중심으로 칼빈의 여성관을 연구해도 별 손색이 없을 것이다.

2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칼빈의 전통적 견해

칼빈에게 있어서 전통적 여성관의 벽을 극복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바울서신에 나타난 교회에서의 여성의 격하된 역할과 여성의 남성에 대한 종속관계 때문이라 할 수 있다.⁴⁾ 특히 칼빈은 공적 예배나 교회의 직분에 있어서 여성의 활동을 극소화시키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칼빈은 공적 예배의 행위에 있어서 모든 활동은 하나님께서 남성에게만 위탁한 직무로 이해하며 이것은 바로 바울이 견지하는 불변하는 성경적 진리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직분문제를 다룬 디모데전서 2장 12절의 주해에서 칼빈은 이러한 견해를 강하게 밝히고 있다.

“바울은 여성들이 그들의 가족을 훈계할 의무가 없다고 하지는

4) 특별히 교회직분 문제에 관해서 바울의 의견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cf. D. E. HOLWERDA, p. 255-256.

않는다.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공적으로 가르치는 직분에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성에게만 그러한 직분을 주었기 때문이다.”⁵⁾

바울의 이러한 강한 주장에 서 있는 칼빈은 구약의 드보라(Deborah)의 경우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사용된 보편성에서 제외된 특별한 경우로 간주하여 여성의 공적예배 활동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성의 공적 예배기관의 직무가 남성의 권위에 예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오히려 하나님이 제정한 자연법에 기인한다고 몰아 부친다. 비록 이러한 논리의 타당성이 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암시하면서도 칼빈은 바울의 입장을 추호도 격감시키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

“여성이 공적으로 가르치는 것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이유는 가르치는 일은 남성에게 복종해야 할 여성의 신분에서 걸맞지 않기 때문이다. 가르친다는 것은 월등한 권위와 신분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⁶⁾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칼빈 자신의 답변도 보다 완고한 입장으로 여성의 공적인 가르침의 권한과 지배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이 어떤 정황에 따라 명령할 수도 있고 동시에 복종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여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자연법칙에 의하면 태어날 때부터 복종하게끔 되어 있다. 지금까지 모든 현명한 남성들은 여성의 통치나 지배를 부당한 기형으로 거절했다. 사실 여성이 가르치는 권한을 찬탈하게 되면 천지가 뒤죽박죽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성들을

5) 칼빈의 답전 2:12주석, In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Y, VOL 21(GRAND R APIS : EERDMANS, 1964), p. 217.

6) 이후에 표기는 칼빈주석이라고 함.
칼빈주석 답전 2:12, p. 217.

84 기독교 교육연구

잠잠하게 하였고, 자신들의 여성으로서의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⁷⁾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칼빈은 13절을 주해하면서 자신의 논거의 타당성이 하나님께서 제정한 자연법에 기초를 하고 있음을 바울의 논거를 통해 재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칼빈은 두 가지 이유로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해야 하는 바울의 견해를 진단하고 있다.

첫째 여성의 복종은 하나님이 창조시에 법으로 제정하였다. 이러한 자연법은 인간의 타락후에도 파괴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된다.

둘째로 여성이 복종해야 한다는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늦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동반자로 남성을 보조하기 위해 태어났다. 하나님이 동등한 기준을 가진 두개의 머리를 창조했우리가 없다. 그는 창조질서에 따라 남자가 여자를 통치하도록 창조하였다. 여성은 보다 열등한 보조자로만 들어졌다. 그리고 남성은 여성의 머리이다.⁸⁾

칼빈은 14절의 주해에서도 여성의 복종문제를 일관성있게 취급하고 있다. 특히 여성때문에 아담의 타락까지 유도된 것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여성의 범죄가 여성이 남자의 권위 아래 예속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해석하고 있다. 칼빈은 여성이 창조부터 복종하는 것이 여성본연의 상태였으며 죄의 결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노예상태가 되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타락이전보다 여성의 복종이 보다 비자율적으로 퇴보했다는 견해를 편다.⁹⁾ 이러한 칼빈의 보수적인 견해는 개혁가로서의 모습을 상실한 것과 같은 실망스러운 칼빈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칼빈은 성경의 가

7) *Ibid.*, p. 217.

8) *Ibid.*, p. 217-218.

9) *Ibid.*, p. 218.



르침과 권위에 자신의 신학적 입장의 생명을 걸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을 벗어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칼빈은 디모테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에게서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도 동일한 자신의 견해를 펴고 있다. 즉, 여성이 교회나 사회의 공적인 일에는 남자의 지도하에 있다는 것이다. 비록 성적인 일에 관해서 남여의 차별을 거부하는 칼빈이 실제 공적 사회생활 영역에서는 여성의 복종개념의 답을 뛰어 넘지 못하고 있다.

“바깥일이나 사회적인 영역에 관한 남자는 그리스도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여성은 남자에게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남여는 이 점에 있어서 동등한 기준에서 있지 못하며 불평등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¹⁰⁾

칼빈은 사회나 공적 예배에서 여성의 공적 활동을 제한할 뿐 아니라 이 점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예속되어 있으며, 남자의 권위에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다. 그리고 심지어 여성은 남성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칼빈의 견해는 고전 11장 7절에서 남자가 여자처럼 교회에서 예배시에 머리를 가릴 필요가 없다는 구절에 대한 그의 주석에 명시되어 있다.

“하나님은 남성에게 탁월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러한 보다 뛰어난 상태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으며, 이것은 모든 월등한 권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의심의 여지없이 여성은 남성의 생활을 더 빛나게 하는 장식들이다. 하나님은 여성이 남성의 반려자가 되는 것을 여성의 큰 명예로 여기셨고, 여성을 몸에서 머리 끝까지 남성아래 두셨다. 이것은 솔로몬이 잠언 12장 4절에 표현한대로 정숙한 여

10) 칼빈주석 고전 11장 3절, p. 230.

성은 남편의 영광이라는 말과 같으며, 이 사실은 모든 여성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질서를 생각하면 더욱 이것은 분명한 진리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밝히는 바이며 동시에 여성은 남성의 삶을 풍성하게 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바울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다.”¹¹⁾

칼빈의 증언에 의하면 바울은 이러한 여성의 남성복종의 원리를 보다 높은 하나님의 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¹²⁾ 그래서 칼빈은 “모든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¹³⁾

칼빈은 여성의 교회에서의 가르치는 것만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베푸는 문제까지도 구체적으로 반대하고 나선다.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남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¹⁴⁾

위에서 살펴본 칼빈은 변함없는 여성의 공적활동에 대한 전통적 보수성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 때문에 어떤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을 엄격한 여성해방운동의 반대자로 해석해 왔다. 비교적 칼빈의 여성관을 개방적으로 접근하려는 비엘러 자신도 칼빈은 여성해방 문제에 있어서는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¹⁵⁾ for Reformed Studies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칼빈의 여성에 대한 엄격한 입장에서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을까? 교회에서의 여성의 공적활동에 대한 칼빈의 폐쇄성이 칼빈의 여성관에 대한 결정적인 결

11) *Ibid.*, p. 232.

12) *Ibid.*, p. 233.

13) *Ibid.*, p. 233.

14) 기독교강요 4.15.22. cf. D. E. HOLWERDA, p. 256.

15) Bieler. l'homme, p. 80. 새인용. D. E. HOLERDA, p. 256.

론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은 다음장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칼빈의 견해들을 재조명해 보면 확연해 질 것이다.

3.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칼빈의 긍정적 견해

전장에서 살펴본 칼빈의 완고한 여성에 대한 폐쇄성은 칼빈이 바울의 여성관에 충실했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칼빈이 바울에게 충실하려고 하면서도 바울이 해석해 내지 못했던 비밀을 해석하므로 바울의 고정관념을 뛰어 넘으려는 노력을 볼 수 있다. 우선 칼빈은 바울의 지론이 변할 수도 없고 가감할 수도 없는 교회적인 불변의 것이라고는 보지 아니한다. 오히려 바울의 견해는 시공에 의해 제한을 받는 지역의 문화적인 전통에 기인함을 시사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이러한 전통은 교회의 형편에 따라 유동적이지 고정된 원리는 아님이 분명하다.

“각 교회는 각 교회가 처해진 환경에 걸맞는 정치형태를 자유롭게 세울 수 있다.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이런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하지는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바울도 이러한 원리에 따라 고린도 교회를 건전하고 참된 방향으로 나아 가고 모든 것이 질서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것이다.”¹⁶⁾

그리고 칼빈은 동일한 고전 11장 2절을 설교할 때는 오히려 더욱 형편에 맞지 아니하는 교회의 관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의도한 바는 규칙을 만들어 개인의 신앙을 구속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법들을 만들었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16) 칼빈주석 고전 11:2.

“바울은 그리스도의 계획과 자신의 의도를 혼합시키려는 것은 아니었다. 바울이 어떤 법을 가중시켜 영혼들에게 굴레를 씌우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교황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법들을 만든것도 아니었다. 어떻게 하든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가 바른 예절과 질서 그리고 평화 가운데서 서로 섬김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법규들을 제공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때를 따라 상황에 가장 걸맞은 여러 종류의 법규를 만들고 각자는 자유롭게 그 법을 지켜 서로 유익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해서 이런 규례들이 신조에 첨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는 안되며 또한 우리의 영혼에 굴레를 씌우는 어떤 법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된다.”¹⁷⁾

서로 다른 환경에 처해 있는 특수성에 의해 만들어진 이러한 규례는 교회의 좋은 질서와 예절과 화목을 위함이 칼빈이 주장하는 법례들의 목적이다. 바로 이러한 교회의 바른 예의와 질서를 위해서 자유롭게 바울이 만든 법규가 바로 고린도교회에 세워진 바울의 여성의 공적활동과 모습에 대한 태도라고 칼빈은 규정한다. 이러한 교회의 바른 질서와 예절을 위해 만들어진 바울의 규례들을 칼빈은 본질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라 외적인 기구(Externa Politia)에 불과하다고 단정하므로 이러한 법례들의 가변성을 다시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법례들을 칼빈은 아무래도 좋은 중립적(Indifferent)인 것으로 성격을 규정 짓는다.

“여기서 바울은 외형적인 기구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부정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자신의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독자들은 바울이 여기서 취급하고 있는 일들이 그 자체로써는

17) 칼빈설교 교전 11장 1,3절(C. O. 49 : 712) 재인용 D. E. HOLEWRDA, p. 257.

선과 악의 성격이 없는 아무래도 좋은 중립적인 것들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교회의 품위나 도덕적 교회를 손상시킬 때는 금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¹⁸⁾

그래서 칼빈은 바울이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도록 명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때문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견해는 에베소나 디모테전서에서 동일하다고 정의한다. 그러니까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칼빈에게 있어서 바울과는 반대로 만인이 따라야할 절대적인 명령은 아니라는 것이다.¹⁹⁾

도리어 칼빈은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기 보다는 교회 행정상의 체계문제라고 지적한다.

“만약 그 명령들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인간의 양심까지도 결속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교회의 행정적인 체제 때문에 그것들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요성은 있을 수 없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는 요지는 고린도교회의 상황에 비추어서 이러한 법들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교회의 외형적인 것들의 질서확립을 위한 방법을 알려 주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은 전혀 파기할 수 없는 성질의 법들은 아니다. 그리고 영적인 예배에 관한 법규와 같이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유용한 것들이 아님에는 틀림없다.”²⁰⁾

바울이 말하는 금지조항들은 가별게 없앨 수는 없지만 모든 상황과 시대에 지켜져야할 행정적인 체제는 아니라는 것이 칼빈의 주안점인것 같다. 여성의 공적 활동이 이렇게 외형적인 질서나

18) 칼빈주석 고전 14장 34절.

19) 바울은 고전14장 27절에서 여자가 말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한다.

20) 칼빈주석 고전 14장 37절.

90 기독교 교육연구

상황적이기 때문에 칼빈은 존 낙스(John Knox)의 입장과는 달리 엘리자벳 여왕의 지배에 찬사를 보내며 영국에 있어서 개신교의 재건을 희망하고 있었다.”²¹⁾ 엘리자벳 여왕의 비서였던 윌리엄 세릴(W. Cecil)에게 보내는 서간문에서 칼빈은 자기가 종래 주장하던 드보라같은 여성의 활동은 하나님의 특별섭리에 의한 것이지 보편성이 아니라고 하던 이론까지 양보하면서 엘리자벳의 통치를 정치적이긴 하지만 지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년전 존 낙스는 개인적인 사담에서 여성이 통치하는 문제에 관해 물어 본 적이 있다. 나는 솔직히 여성의 통치는 원초적인 자연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일이 생기면 이것은 남성들이 자신들의 통치권한을 태만하게 한 것의 결과이기에 그들에게 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여성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재능을 부여하면서 남성의 우둔함을 저주하고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통치의 축복을 주셨던 경우가 있다.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 여왕들이 교회를 양육시키는 어머니를 삼을 것이라고 하신 것을 보면 분명히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여왕들을 다른 여성과 구별시켰음을 볼 수 있다. 최종적인 나의 결론은 여성 지배의 관습이나 여성지배에 대한 공통적인 동의가 지속되어 온 사회나 국가의 여성 통치는 여성들의 통치가 약간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허락해야 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세워진 정부 자체가 여성 통치에 대한 반대 때문에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²²⁾

21) 칼빈의 서간문 4 : 47. *J. Bonnet, Letter of John Calvin*(New York : Burt Franklin, 1972).

22) 요한 낙스(John Knox)는 영국의 여왕들의 통치에 반대하는 글을 썼다. *BLAST AGAINST THE MONSTROUS REGIMENT(RULE OF)OF WOMEN*. 칼빈이 엘리자벳 여왕에게 찬사를 보냈을 때 여왕은 칼빈이 낙스가 쓴 이 팸플렛의 아이디어 제공자라고 취급하여 자신에 대한 경외심을



성숙한 시대의 감각으로 재 조명되어야 칼 칼빈의 여성관 91

이러한 칼빈의 여성의 공적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원리가 기독교강요에서 보다 더 명료하게 다듬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독교강요 중심의 칼빈의 여성관 해석은 특히 더글라스(J. D. Douglass)에 의해 잘 묘사되고 있다. 칼빈이 주로 전통적인 여성관을 극복할 수 없었던 단서는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질서에 있어서 바울이 해석한 여성의 위치비하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칼빈의 견해는 주로 그의 주해나 설교에서 반영되고 있다. 칼빈의 대작인 기독교강요에서 칼빈은 창조질서를 언급하면서도 여성의 남성종속 관계를 연관시켜 설명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의 초작인 1536년 판에 의하면 칼빈이 인간창조에 대해 설명할 때, 그리고 타락에 관해 설명할 때, 이브가 제외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부관계를 말하는 십계명에서도 여성의 남성종속 관계는 언급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부분과 어린이들이 부모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도 여성들이 그들의 남성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중세기 결혼의 비성례 문제를 다룰 때 이런 문제는 대두되지 아니한다. 또한 프리스길라(Priscilla), 이브(Eve), 동정녀 마리아(Virgin Mary) 등 많은 여성을 언급하는 곳에서도 이런 문제는 취급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장에서 교회에서의 여성의 침묵을 비롯한 예외와 질서에 관한 기독교인의 자유를 언급할 때 교회에서의 기존법들이 항구적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의 올바른 설립을 위해서는 포기하거나 변경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만약에 교회가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법규라도 변경시키도록 허락 해야 하며 동시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규칙도 포기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²¹¹

거절했다.

23) 칼빈의 서간문 4 . 47. J. Bonnet, *Letter of John Calvin*(New York : Burt

92 기독교 교육연구

여기서 칼빈은 바울이 여자가 교회에서 머리를 가리우고 침묵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장의사가 어떻게 시체를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것과 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다. 칼빈은 분명히 여자가 교회에서 침묵하라는 바울의 명령을 하나님의 영원한 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 지역의 교회에 정착된 습관이므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도 그것이 바뀔 수 있다고 한다.²⁴⁾

1536년 기독교강요판에서 칼빈이 결혼과 가정에 있어서 전통적인 견해에 — 여자의 복종 —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칼빈이 자유라는 장에서 다루는 것이 또한 흥미롭다. 여기서 칼빈은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는 바울의 주장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묶어 둘 수 없는 성질의 것이며 또한 교회전통과 역사적으로 조성된 것이라고 천명한다.²⁵⁾

칼빈은 1559년 그의 마지막 기독교강요 판에서는 여성의 위치에 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바울이 전개하는 여성비하 개념은 정치적 질서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칼빈은 여성의 하등성(Inferiority)은 인간의 문제며 역사적인 판단에 기초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러한 의미를 사람들이 여성들을 하나님의 창조형상이 부족한 존재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정되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²⁶⁾

칼빈은 산파가 유아에게 베푸는 세례에 있어서도 교회의 공인을 받지 못한 자들의 성례의 남용에 대해서만 강조하지 세례자들이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칼빈은 도리어 평신도인 남녀가 위급한 상황에서 세례주는 것을 수긍하

Franklin 1972).

24) 1536 기독교강요 1. 256-257 재인용 J. D. Douglas, p. 46.

25) J. D. Douglas, p. 46.

26) *Ibid.*, p. 47.

고 있다.²⁷⁾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칼빈이 주장하려는 여성의 문제는 교회의 예절과 질서 문제로 규정짓고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기도나 질서가 공동체의 바른 기능을 위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자유로운 양심에 의해 시행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성문제는 교회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도 환경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재론하고 있다.

이러한 칼빈의 여성관에 대한 긍정적인 것이 - 교회에서의 여성 문제는 역사적으로 조성된 부류의 것이지 양심을 묶어놓는 영원한 신적법례는 아니다 -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여성이 침묵하고 머리를 가려야 한다는 바울의 명령에 대한 자신의 원초적인 확신때문에 자신의 시대에 있어서 근본적인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559년 기독교강요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16세기의 전통적인 여성관에 비해 칼빈은 여성의 위치와 존엄성을 상당히 강하게 부추겼다는 것이다. 여성을 남성과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 점에서, 마리아를 통해 예수가 탄생했다는 사실에서, 그리고 초대교회의 여성들의 공적활동을 통해서 칼빈은 여성의 공적활동을 인정하려는 깊은 인상을 풍기고 있다.²⁸⁾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여성관을 정리하면서 내린 더글라스 교수의 결론에서 칼빈의 견해가 전통적인 여성관을 뛰어 넘고 있는 단면을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여성의 일반적인 복종을 지지할 만한 확고부동하게 명료하고 긍정적인 증거를 칼빈에게서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 칼빈이 복종이라고 할 때 그것은 복종이 인간적인 지배

27) *Ibid.*, p. 48.

28) *Ibid.*, p. 49.

체계의 영역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분명히 알 수 있다.²⁹⁾

어쨌든 이러한 칼빈의 견해는 16세기의 여성에 대해 전통적이고 폐쇄적인 정황에 비추어 예외적이고 선구적인 견해임을 감지할 수 있다. 그리고 칼빈의 주장의 근원은 바로 크리스찬의 자유사상에 기초함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충고는 칼빈에게 있어서 존경할 만한 훈계이긴 하지만 신자의 양심을 영원히 묶을 수 있는 불변의 법칙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일이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 그리고 복종문제는 교회의 상황에 따라 조종될 수 있는 것이다. 칼빈은 바울의 가르침을 인간의 지배(Human Governance)라는 상황 속에서 이해하여 성경본문이 제시하는 요구의 범주를 또한 뛰어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준 신앙의 양심이 하나님께서 특정한 때를 위해 설정한 질서를 파기하고 교회의 소생을 위해 새로운 질서를 정립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들면, 칼빈은 성경속에서 여성들이 지배하고, 가르치고 예언한 사실들을 원초적으로 성령에 의해 부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실들은 성경에 나타난 전통에 의해 부정적으로 이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⁰⁾

이러한 자신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그의 주석을 통해서 남자의 권위가 여성의 그것보다 우위이며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전통적인 감각에서 떠나지 못하며 또한 제네바 교회의 현실에 아무런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 이유는 전장에서 지적한대로 바울의 입장에 대한 거부는 성경의 권위와 영원

29) *Ibid.*, p. 51.

30) *Ibid.*, p. 62.

한 말씀에 대한 칼빈에게 있어서의 불허적인 신념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에 이미 교회에서의 여성의 위치에 관한 논란이 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칼빈이 바울신학을 다시 해석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칼빈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우리는 고정적인(Static)것이 아니라 역동적(Dynamic)인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여성의 역할에 대해 칼빈은 부정과 긍정의 긴장 속에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칼빈의 양면성의 성격을 띤 입장을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16세기 보다 성숙해 있는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성숙한 시대 감각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칼빈의 여성관

개신교 입장에서는 16세기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었다. 인본주의자이든, 종교개혁자이든 신앙양심의 자유에 새로운 중요성과 가치를 부여하였다. 이 양심의 자유는 제도적 교회의 모순에 대한 도전용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 사회전반적인 변혁을 가져왔다. 여성의 해방에 대한 물결도 이러한 양심의 자유를 기초로 이해되어 왔고 칼빈 자신도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³¹⁾ 칼빈이 시종일관 바울의 전통적 입장에 부딪혀 고민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6세기 종교개혁후 4세기가 지난 오늘날 즉, 과거의 여성문제가 문화적인 배경(Cultural Setting)에 기초되었음이 명확하게 들어난 현 시점에서 여성의 위치를 여전히 남성다음에 가는 이차적인 위치(Secondary Position)로 고집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보어(De Boer)의 칼빈의 여성관에 대한 결론은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1) *Ibid.*, p. 62.

“칼빈은 바울의 명령뒤에 어떤 문화적인 상황이 깔려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교회와 사회속에서 삶의 새로운 방법을 야기시킬 수 밖에 없는 변화하는 시대와 새로운 정황들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래서 칼빈은 여성의 역할에 관해서는 비록 자기의 주장이 창조질서 속에 있는 여성의 복종상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지만 상당한 양보를 기꺼이 하고 있었다. 그래서 칼빈의 여성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변치않는 일관성에도 불구하고 여명을 비추는 개방이 있음을 알 수 있다.”³²⁾

그래서 어떤 문화가 창출한 제도적 체계가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원리의 거울인 양심을 부합할 경우, 그리고 문화가 만든 원리를 수용할 수 있는 시대의 성숙이 조성된 경우에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행위가 우선되어야 함을 칼빈은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칼빈이 지나칠 정도로 극복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바울서신에 나타난 전통적인 여성관이 기독교인들의 영원한 도덕적 원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더군다나 사랑, 질서, 예절이 교회의 화합을 위해 우선적으로 따라야 할 원리로 수용된다면, 즉 여성의 공적인 사역이 교회의 질서에 파괴를 가져오지 아니한다면 얼마든지 적절한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시행될 수도 있는 것이다.³³⁾

칼빈신학의 바른 이해는 칼빈 자신이 말한대로 양심의 자유에 기초하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 없으며, 특히 그의 여성관 이해에 있어서 더욱 이러한 입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양심은 물론이고 시대의 양심에 따라서 교회에서의 여성의 공적역할

32) 특히 J.D. Douglass는 크리스찬의 양심의 자유를 칼빈의 여성문제에 대한 근본사상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근본사상으로 보고 있다. cf. *Ibid.*, pp. 12ff.

33) D.E. HOLWERDA, *op. cit.*, p. 271. cf. John Calvin's Institutes HIS OPUS MAGNUM p. 221.

이 거론되어야 함이 성숙한 시대에서 재조명 되어야 할 칼빈의 여성관의 첫번째 과제이다.

두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속에 규정된 모든 것이 다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우리의 행동규범을 설정한다는 견해를 견제해야 한다. 칼빈의 고민도 바로 이러한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속에 기록된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성경속에는 반드시 시간적으로 한정된 원리가 있다. 이 시간적인 제한성이 있는 진리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진리에 기준하여 삶을 살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시대에 적용한 원리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특정한 시대에 국한되어 있는 원리나 문화적인 양태들이지 어느 시대에나 적용될 수 있는 성격의 진리는 아니다.

예를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처럼 실제로 그런 제도를 우리 자식들을 바치기 위해서 불리움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한 시대적인, 한 개인에게 적용되었던 하나님의 원리였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양태의 행동을 할 필요가 없지만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리는 배울 수 있다.³⁴⁾ 마찬가지로 바울시대에 형성된 여성의 지위에 대한 외적인 양태를 오늘날 그대로 준수할 필요는 없지만, 교회의 질서와 예절이 최우선적으로 교회의 공동체의 원리가 되어야 함을 볼 수 있다.

오늘날 여성의 지식적인 수준과 활동역할이 충분히 배양되어 있는 교회의 여건에서는 얼마든지 여성의 활동을 개방함으로 교회의 유익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여성의 공적인 사역은 이 시대에 요청되는 칼빈의 소리라고 할 수 있다. 그

34) *Ibid.*, p. 260.

러나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내세워 전통적인 견해를 견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³⁵⁾ 이들은 성경에서 시간적 제한을 받는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면 성경의 어떤 가르침도 시간의 제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의 사역과 기능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남성에게 복종하고 교회의 공적 기능에도 남성지도의 우위권으로 창조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적 상황에 의해 가변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창조의 불변적 원리를 규정짓는다.³⁶⁾ 그리고 이에 옹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로 몰아 세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치 않고 인간의 이성으로 규정짓는다고 질책하고 있다.³⁷⁾ 그러나 바울의 다른 예를 검토해 보면 여성문제는 분명히 바뀔 수 있는 시대적인 양태임을 알 수 있다.

에베소서 6장 5절과 골로새서 3장 22절에 나타난 노예문제에 대해 바울은 노예들이 주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견해를 오늘날 아무도 불변의 말씀이라고 해석하지는 아니한다. 이 말은 분명히 종속관계의 노예제도를 뛰어넘지 못하는 정황에서 언급되지만 오늘날 이런 문제들은 상식으로 이해가 되고 있다. 바울의 여성관에 대한 양태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로 바울시대에 교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적용되었다. 문화적인 양태를 뛰어넘어 여성의 공적사역에 대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게 성경을 성경답게 하는 해석론이다.

세번째로 바울이나 칼빈의 여성관이 시대적 정황에 의해서 기록된 역사적 배경을 연구하면 우리는 그들의 전통적 입장을 보다

35) *Ibid.*, p. 223.

36) cf. T. Foh Susan, *WOMEN AND THE WORD OF GOD: A RESPONSE TO BIBLICAL FEMINISM* (Philadelphia: Prey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81).

37) *Ibid.*, p. 260.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들 속에서 여성개방의 가능성을 유도해 낼 수 있다. 바울이 이러한 여성관을 가지게 된 배경을 성경에서 언급한 바는 없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바울이 여기에 관한 서신을 쓸 때에 영지주의자들(The Gnostics) 때문에 갈등하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바울이 세운 새로운 교회에 온갖 종류의 이단적인 요소로 위협하고 있었다. 영지주의자들은 남여가 절대적으로 동등하다고 가르쳤으며, 그 여파로 남편에게 거역하는 등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결혼을 거절하기도 하였다(cf. 딤후 4:3). 또한 교회에서 전통적인 제도에 도전하여 여자가 어떤 공적인 순서도 밟지 않고 마음대로 가르치는 등 기존 질서에 대한 교란이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취한 것은 교회의 질서와 예의와 평화였고 이런 원리 위에서 전통적인 여성관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시 교회의 질서를 위해 최선의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바울이 여성의 열등을 강조했던 유대주의(Judaism)에 대항해서는 여성의 복종을 요구하기 보다는 동반자(Partnership)로 이해하고 있다.³⁸⁾ 바울의 여성관이 형성된 역사적 틀을 점검해 볼 때, 바울의 근원적인 여성에 대한 이해는 차라리 갈라디아서 3장28절에서 그 원리를 도출해 내어야 할 것이다: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의 시대적 배경은 칼빈의 경우와 상이하다. 칼빈은 당시 재세례파(Anabaptists)나 성령주의자(Libertines) 등 공적으로 안수도 받지 아니한 남여 평신도의 성례 집행이나 말씀선포로 인해

38) *Ibid.*, p. 261.

자신의 종교개혁이 혼선을 초래하게 되는 요인들을 가지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로마가톨릭의 여성비하적인 태도에 도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양극단 사이에 처해 있는 칼빈의 입장은 바울의 전통적 여성관을 파기할 수도 또 용납할 수도 없었는지 모른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칼빈의 여성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역사적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통해서 바울과 칼빈의 여성관이 무(Ex Nihilo)에서 창안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해 있던 시대적 정황의 영향권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우리는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시대적 정황이 달라진 현실에서는 그들의 여성관이 반드시 복음적으로 재조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때 우리는 차라리 바울이 제시한 남녀관계의 다른 긍정적인 원리를 강조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들면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 있는 그대로만 강조하지 말고, 11장 11절 말씀도 반드시 강조해야 할 것이다.

11 : 9;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11 : 11; “그러나 주안에서는 여자없이 남자가 없고 남자없이 여자가 있을수 없다”.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그러므로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과 같이 남자도 여자를 위해서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은 상호보완의 관계이지 일방적인 종속의 관계가 아니다.³⁹⁾

네번째로 칼빈의 여성관은 그의 인간 창조질서에 대한 해석에서 제시한대로 남여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에서 재정리 되어야 할 것이다. 칼빈은 여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

39) John Calvin's Institutes HIS OPUS MAGNUM, pp. 225, 231.



에서 본질적으로 전혀 남성과 차등을 두지 아니한다. 다른점이 있다면 걷고, 말하고, 노래하고, 느끼고, 여성이 남성과 생각하는 방법에서 다른점이 있을 뿐이다. 남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 고유의 개성이 여성과는 다른 것이다. 신체적인 조건도 이와 같이 다른 점들이 서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남녀 차등의 구조와 질서를 만들 수 없다. 칼빈은 도리어 이러한 현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독특한 선물로 생각하며 이런 개성을 따라 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로 동반자가 되는 것이 창조질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한 자연법이며 자연질서이다.⁴⁰⁾ 어떤 사람이 정황에 따라 제정한 구조적인 통치형태보다는 하나님이 설정한 자연법칙에서 칼빈의 여성관을 조명해 본다면 또한 우리는 칼빈의 여성관 속에 내재하는 바울적인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시대의 여성해방이론을 칼빈의 여성관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칼빈의 여성관에 대한 총체적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Ⅲ. 결 론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어느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아들이다. 칼빈 자신도 16세기라는 시대의 아들이었다. 16세기까지 부동의 원리로 중세기의 인간사고와 사회의 구조를 형성했던 도식(Schema)은 자연과 은총(Nature and Grace)의 구조였다. 중세기의 여성관도 이러한 자연과 은총의 교리로 이해되어졌다. 결혼과 섹스는 허용되었지만 여성의 독신이 보다 은총적이란 개념은 중세인에게 절대적이었다.

40) *Ibid.*, p. 226.

102 기독교 교육연구

여성본연의 특성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며 독신하는 것이 더 큰 은혜라는 도식 속에서 희생이 되었던 시대이다. 그리고 여성은 실제로 이 시대의 남성에게는 종속적인 존재였고 남성의 재산이었다. 오직 남성의 육적욕망과 자손의 생산을 위해 존재하였다.⁴¹⁾

이러한 도식은 루터나 칼빈의 정신구조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중세인들의 정신과 다른 점은 적어도 전통적인 도식과 더불어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성문제에 있어서 칼빈은 루터보다 훨씬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적어도 칼빈은 여성의 공적사역 문제를 시대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범주에 국한 시킴으로 현대인에게 여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다. 칼빈이 갈등하게 되며 또한 갈등을 통해 바울의 견해를 재조명해 보려는 그의 시도의 근본 원리는 자신의 개혁신학사상의 출발점인 기독교인의 양심의 자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칼빈은 기독교인에게 가장 우선적이고 필요한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 자유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나 복음에 대한 진리까지도 제대로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다고 칼빈은 보았다.⁴²⁾ 칼빈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의 자유는 단순히 인간적인 법적 굴레나 강요에서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 최악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세상과 이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되는 자유를 의미한다.⁴³⁾ 이러한 칼빈의 개혁정신에서 칼빈의 여성관을 조망시켜본다면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남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공적 활동에서 성차별없이 능력에 따라 봉

41) J. D. Douglass, p. 46.

42) 1536 기독교강요 6.1. 재인용 J. D. Douglass, p. 12.

43) J. D. Douglass, p. 121.



성숙한 시대의 감각으로 재 조명되어야 할 칼빈의 여성관 103

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